

# 가정생활 속의 남북한 여성의 삶\*

## The Life of women living in South-Korea and North-Korea in the family life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문숙재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 : Sook Jae, Moon

###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가정경제와 여성의 역할 |
| II. 이데올로기와 가사노동 | V. 요약 및 결론       |
| III. 가족과 여성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paper begins with the question, "What is the life of women living in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question is quite significant but not known well. In fact, there have been great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Korean societies since the 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ense, the family life in women living in south and North Korea can not be exceptional. The task on which women in South and North Korea are currently facing is not only to overcome heterogeneity in such areas as politics, economics, and socio-cultural systems, but also to recover homogeneity we had shared for a long history before the partition.

The difference in the ideology makes a difference to decide on a policy on the household work. It comes out of the socialization method of household work. In North-Korea, the collectivization of household work get a lot of accomplished. The other hand, the commercialism of household work get a lot of accomplished in South-Korea. This made differences in the domesticity between South-Korea an North-Korea.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omesticity in North-Korea and South-Korea to prepare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Korea. To compare the

\* 이 연구는 1994년도 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family life in South-Korea and North-Korea, this study adjusts the focus of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There is a great difference in the ideology between the two political systems.

In the North Korean society, in order to help women manage their "the double role" for home and workshop, the socialization of housework strategy has been strongly recommended. But socialization of housework strategy has been proven to have a number of problems: the loss of family individuality, inhumanization of family, family's scattering, and a low quality. Therefore, this strategy has not been used widely. But, the collectivization of housework has been used widely. There are three types in the socialization of housework: the commercialism of housework(가사노동의 영리화), the collectivization of housework(가사노동의 집단화), and the public of housework(가사노동의 공공화). Otherwise, the commercialism of housework has been used widely in south Korean society. Yet it is very far from North-Korean life due to a shortage of goods.

As a result, the different ideologies result the different family life. The different family life is proven to the different socialization of housework. This is very significant. If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s realized, the socialization of housework can be used a strategies to overcome the differenc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 1. 문제제기

이제까지 남한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무력도발 억제제를 위한 군사-안보 정책과 함께 동포애에 바탕한 지원과 대화노력이 병행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과의 경제교섭 및 식량원조등 보다 활발한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서 냉전보다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우선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냉전 분위기로 돌아선 것은 1996년 북한의 무장공비의 잠수정을 이용한 동해안 침투사건 때문이었다. 이와함께 국가 안보의 허술성과 대북정책의 안이성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이러한 강경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식량 지원이나 남북한 경제협력 등은 앞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었고, 당분간 북한과의 냉전상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1991년 남북한 UN동시가입이후 자라난 통일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통일에 대한 준비마저 사라져선 안 될 것이다. 무장공비 사건이 터진 후 미국 언론에서

는 특이한 '한국인의 정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조선일보, 1996년 10월 2일). 즉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북한의 위협에 분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동족의식을 보이는 한국인의 정서가 이상하다는 기사였다. 공비소탕 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녘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 한국인의 모습을 미국인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이 라면 누구나 공비침투에 대해 격분했겠지만 판문점 임진각에서 치루어진 실향민들의 추석행사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동족의식 때문에 우리는 냉전속에서도 평화 통일을 해야만 한다는 의지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낙천적인 기대는 버려야 하겠지만 북한에 대한 경계와 함께 한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한 준비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과제는 서로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맞추어가기 위한 준비이다. 이때 서로의 일상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다. 가정이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이며 인간적 삶의 공간이다. 그리고 가정생활은 그 사회의 체제적 특성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지만 한 사회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라는 사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남한 가정생활과의 비교를 통해 두 체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통일후 남북의 이질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을 달라지게 했던 이데올로기나 체제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게 된 가정생활 운영방식 비교를 통해 남북의 가정생활과 여성생활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이때 두 체제간의 가정생활 운영방식의 비교를 위해 가사노동 사회화의 동기와 방식을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가사노동 이외에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관계와 가정경제, 육아등을 통해 전반적인 가정운영상태를 살펴본다. 또한 이 모든 내용을 가정운영의 직접적인 관리자인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어 해석해 보았다. 즉 본 연구는 사람들의 가사노동 수행방식과 가정운영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남북생활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남북의 융화방향을 모색해내는 보다 실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 II. 이데올로기와 가사노동

모든 사회주의는 맑스-엔겔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유재산의 철폐를 기본으로 무계급, 무억압, 무착취의 평등구조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적 동원에 의존하는 억압적·전체주의적 방법-프롤레타리아 독재-이 불가피하게 선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전면적인 평등구조의 실현을 통해 타인에게 종속되거나 억압되지 않게 하는 것은 경제적 계급의 철폐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즉 경제적 계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성적·인종적·민족적 불평등도 같이 해결되어야만 하였다(윤미량, 1991).

따라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우선 해결해야 했던 것은 성적 불평등이었다(윤미량, 1991). 이런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가사노동을 자본주의가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여성해

방을 위해 사라져야할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본 노선의 커다란 차이는 곧 여성의 생활과 가정생활의 차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여성정책에는 '여성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시켜 산업사회에 돌려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개혁의 기본 노선이 숨어 있다.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집단화를 이룸으로써 생활의 중심인 가족주의를 타파하고 그 자리에 공산주의적 집단노동가족을 대치하려는 김일성체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또다른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즉 여성이 담당하던 가사노동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시킬 필요가 절실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가사노동 사회화의 동기로서, 이것은 사회주의 건립을 위한 여성 노동력의 동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 할 수 있다.

한편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남한은 사유재산의 인정, 이로 인한 부의 축재가 가능한 사회이다. 그리고 가사노동을 가정의 기본생활을 유지시키고, 가족의 안녕을 보장하는 노동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가치는 인정되지 가능한 가사노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줄이고 산출을 높이려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한 사회에서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처럼 여성의 노동력 동원을 위해 취해진 조치라기 보다 가사노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나타난 방식이다. 또한 이는 정부차원의 계획적인 시행이라기 보다 자본의 여유로 인해 누릴 수 있게된 혜택 또는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따른 요구라는 차이가 있다(문숙재·조성은, 1996).

이처럼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남북의 가사노동 사회화의 필요성과 진행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가사노동 사회화방식의 차이는 남한 가정 생활에서 가사노동 수행방식상의 차이가 된다(문숙재·조성은, 1996). 따라서 가사노동 사회화로 인한 남북가정생활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이것은 바로 달라진 남북 가정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된

다.

이러한 가사노동 사회화의 유형은 노동제공자에 의한 분류와 노동종류에 의한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노동제공자에 의한 분류는 그 노동을 누가 대신하는가에 따라 첫째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는 영리적인 사회화, 둘째, 동일한 목적을 갖는 지역의 사람들이 경제력, 시간, 노력등의 가족 자원 절약을 도모하는 집단화·공동화이며, 세번째 형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사회적·공공적 사회화이다(문숙재, 1990).

이때 영리적인 사회화는 자본을 주고 대신 시장에서 가사노동을 대체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게 되므로 가사노동의 시장화 또는 산업화라고도 일컬어진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탁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가스레인지, 냉장고등 가정생활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줄 기기의 구입이나, 가공식품이나 반가공식품 등의 재화 구입이 이에 속한다. 또한 세탁소, 사설유치원이나 놀이방, 레스토랑등 외식사업체의 이용등 용역의 구입도 포함된다(문숙재, 1990).

한편 북한에서는 이러한 영리적인 사회화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즉 국가의 계획된 경제 통제하에 놓여있고 사유재산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채 필요한 물자는 국가에 의해 배급되거나 스스로 조달하고 있으므로 자본주의인 남한처럼 자본과 시장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리적 사회화가 북한에 비해 남한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사노동 수행방식이라면, 가사노동의 집단화·공동화에 의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 더 많이 추진되는 방식이다. 이는 사유재산의 철폐 및 정부의 계획적 동원에 의존하는 전체주의적 방법을 통해 가사노동의 집단화·공동화가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남한처럼 일일이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을 존중한다기 보다 주민 통제와 감시를 위한 공동생활 형태를 갖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즉 3-5가정이 모여 있는 공동주거가 자리잡은 북한에서는 변소, 수도, 마당등을 공동으로 관리 사용

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가사노동의 집단화·공동화가 주택사정으로 인한 공동 사용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 사회화의 세번째 유형인 사회적·공공적 사회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설비 및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공적 서비스에 의한 대체라고 한다(문숙재·채옥희, 1990, 재인용). 북한에서는 탁아소나 유아원, 양로원이 대표적이며 그외 장공장, 밥공장, 가족식당등을 들 수 있다. 남한에서는 보건소나 정부운영의 유아원 및 유치원, 양로원이 이에 해당된다. 가족식당이란 글자 그대로 가족단위로 식사를 하는 식당을 말하는데 식량배급권을 식당에다 제출하고 아침, 점심, 저녁별 부식비와 기타 수수료를 주어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기숙사와 같은데 다만 작은 집에서 자고 식사는 가족식당에서 하는 것이다. 또다른 형태의 밥공장은 시,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침과 저녁에 판매하는 밥은 양권 또는 쌀을 가지고 가서 교환하고, 국은 돈으로 계산해서 집으로 가져다 먹는 방식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모자보건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199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남한의 보육제도는 나라에서 장려하고 권장하는 것이라기 보나 기혼여성들의 취업증가로 인해 나타난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조기 교육차원의 육구 충족을 위해 생겨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양질의 보육을 보장하려면 높은 수준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으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은 보다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중하층 지역에서는 가능한한 낮은 임금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겨둘 곳이 필요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경우만이 가사노동의 사회적·공공적 사회화에 해당된다. 그러나 남한은 탁아사업이 국가가 유도하는 정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곳은 국가가 운영하는 극히 적은 수로 한정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저렴하고 질 좋은 탁아시설과 위탁시설의 공급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문숙재·조성은, 1996).

결국 이 유형은 두 체제 모두 정부나 국가 주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북한은 정부가 전적으로 맡아 운영하게 되며, 남한은 영리적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빈곤가정의 지원이나 국민 복지의 향상 측면에서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문숙재·조성은, 1996).

### Ⅲ. 가족과 여성

어떠한 사회체제든지 그 사회가 가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체제가 불안정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 혼돈마저 야기된다. 따라서 가족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놓여진 사회체제를 이해해야만 한다. 한때 서구사회에서는 가정이 개인의 욕구와 자아실현을 위한 사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가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배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부터는 가정이 국가발전과 중요한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질서유지를 위해 가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어 사회체제와 가정과의 관계가 다른 체제보다 중요시된다(조용관, 1995).

따라서 북한도 사회주의 실현의 초기단계에서 무엇보다 가족제도의 개혁에 먼저 착수했다. 이는 기존의 유교적·전통적 가족제도가 권위주의적이고 혈연적 귀속성이 강하므로 사회주의 혁명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봉건적 가족관계는 남성우월적 제도로서 여성들에게 정치적·경제적 압박이 더 컸으므로 “여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연속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속에서 그들에게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로 내세우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으로서 가족상호간의 평등, 특히 남녀간의 평등이 법적으로 강조되고 이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다는데 역점을 둔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그리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구조와 동족집단의 조상숭배 관념은 배제되고 그 대신 소위 사

회주의적 가족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북한에서는 가족법에 ‘대가정’이란 용어를 사용하여(조용관, 1995) 북한사회전체를 한가정으로 보고 그 어머니를 김일성으로 보는 독특한 가족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물론 이것은 김부자의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였지만 봉건적 가문중심의 가족구조를 격파하여 전통적 가족구조를 거의 파괴시키는 정책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사유재산제도의 폐지로 자손들은 상속할 사유재산이나 문중토지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종래의 문중·혈연 중심의 가족구조로 부터 벗어날 기회가 많아져 전통적 가족구조는 더욱 약화되어진다.

그러나 문중으로 대표되는 봉건적 가족제도가 어느 정도 소멸되고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북한당국은 가족해체적 정책을 수정, 가정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재정립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가정은 ‘최저생산 단위’인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학습장’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혁명화는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위로서의 가족단합을 더욱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파악하는 전체하에 전통적인 가족주의로 유지되고 있다(윤미량, 1991). 따라서 가족관계, 부부관계, 가사분담에는 아무 변화도 없이 여성에게 가정과 모성이라는 전통적 역할과 여성자신이 혁명화, 노동계급화되어야 하는 이중역할을 요구받는 가족제도를 놓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가부장제 질서의 유지는 여성의 가정내에서의 지위를 어머니, 아내, 며느리라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종속적 존재로 만들면서 동시에 주부를 가사노동의 전담자라는 의미로 국한시키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남편을 소개할 때에는 ‘우리 주인’, ‘우리 세대주’라는 표현을 쓸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만큼 부부관계는 수직성향이 강하며 이는 결국 여성의 사회적 노동이 여성의 가정종속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의 계몽 TV 드라마나 김정일의 말에서도 나타난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부부들은 한결같이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하며 김정일도 자신의 처를 소개하면서 “우리집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

편네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 잘하면 되는 거지요'라고 말하고 있다(조용관, 1995). 이러한 수직관계의 부부관계는 남성들은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인 아내를 다룰 수 있게 해주고 이는 여성만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만들 뿐 아니라(윤미량, 1991), 여성비하 분위기까지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결국 북한과 남한은 한가지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역할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족역할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60-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남자가 전통적 bread-winner는 아니라는 사실만 차이가 날 뿐 전통적 주부의 일은 여전히 주부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안계춘, 1989).

한편 북한의 결혼과 이혼제도는 이런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여성은 만 17세 이상, 남성은 만 18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서 강화되기 시작한 '가정의 혁명화'를 위한 조직생활과 노동생활기간의 연장을 위해서 북한에서는 혼인연령을 남자 30세, 여자 27세 이상으로 늦추어서 결혼을 늦게 하도록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이혼은 가끔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 수는 아직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고 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 사회보다 훨씬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 제기된다. 이혼의 일반적 사유는 여자의 부정이나 남자의 폭행,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경우나 남자가 불구인 경우 등이며 그 외에도 성격상의 이유로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을 하기도 한다. 자녀문제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금전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는 가정에서 부인이 사용하던 가구를 비롯한 일체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안계춘, 1989). 결국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은 별 위자료도 없이 양육을 도맡게 되고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나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므로 북한의 여성은 자연히 남성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더욱 남성과 그 가정에 봉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남편이 음식이 맛갈스럽지 않아 조

반을 안 들고 사무실에 나가 버릴까봐 몹시 근심'하는 아내나 '점심시간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자기 손으로 남편의 밥상을 차려야 시름을 놓는' 아내의 모습이 대한 묘사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자녀수 둘로 제한)으로 인해 북한의 가족형태는 3-6명으로 구성된 핵가족 또는 부부중심의 2세대 가족일 것이라는 추정이 지배적이다(이은숙, 1993). 그러나 상당수(20%내외)는 3세대 가족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주택부족과 막아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전통때문에 확대가족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우 특히 세대간 격차나 개성의 차이로 인한 고부갈등이 빚어지게 되면 며느리쪽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종래 고부갈등의 주요요인이던 가정내 경제권이 현재 북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성이 직장생활 등 사회적 노동에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사를 도와주는 시어머니의 존재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많다. 또 '가정의 화복은 며느리에게' 달려 있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여맹등을 통해 강화시켜 며느리는 직장에 다닐 때라도 귀가후에는 시어머니가 덜 힘들도록 가사노동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윤미량, 1991). 이렇게 볼 때, 북한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남한에서 보다 상호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시어머니를 푸대접한 며느리에게 이혼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문이 나올 정도의(경향신문, 1996년 2월 7일) 남한의 고부갈등 관계와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1970년 11월 2일에 개최된 노동당 5차 대회에서 6개년계획 기간 내에 북한의 모든 어린이를 사회적으로 양육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탁아연령은 생후 1개월부터 만 3세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탁아소에서 양육된 유아는 만 4세가 되면 유아원에 보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육아에 대한 책임이 제도적으로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일차적인 육아의 책임은 가정 특히 어머니에게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북한에서 탁아소에 의한 어린이 양육 목적은 첫째 어렸을 때부터 집단주의 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한 것,

둘째 어머니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시키기 위한 것, 세째 부모와 자식간의 정을 상대적으로 김일성과 공산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치시키기 위한 것 등이다(공산권문제연구, 1972).

1일 탁아소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린이를 맡아 보게 되어 있으나 통상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이태영, 1981). 아기 젓먹이는 시간도 규정되어 있어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씩 젓을 먹이되, 1회마다 젓먹이는 시간은 30분씩이다. 일년 이상된 유아는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씩 30분간씩 젓을 먹이는 데 이는 작업시간규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공산권문제연구, 1972).

아기의 빨래는 작업도중의 어머니가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 찾아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이태영, 1981). 탁아소에 맡기는 것은 규정상 강제는 아니나 여성의 노동이 보편화 되어 있는 반면 식모나 가정부의 도움이 불가능한 북한에서는 탁아소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탁아소에 아이를 맡겼다 할지라도 직장을 오고가며 젓을 먹이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 빨래를 처리하는 등 여성은 직장일을 하면서도 아이돌보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한다. 이러한 탁아소에 아이를 맡김으로써 생긴 의식에 대한 연구(이태영, 1981)에서도 북한의 여성들은 과거보다 편해졌다는 응답이 전체의 9%에 그쳐 탁아소가 여성들을 양육에서 해방시켜주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강요된 탁아소, 유치원은 가정분위기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거리감을 갖게 하며, 전통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자식의 부모불신과 효상실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률에 비해 탁아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있지 못해 여자가 출산을 한후 아이를 적당히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쉬거나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친정부모나 시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적당한 시설을 찾기관 아직까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조기 교육의 활성화와 주부의 취업증가로 유아원과 유치원 및 그외 사설학원이나 놀이방의 이용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 하지만 낳자마자 아이를 양육원에 맡겨야 하는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돌전의 아이를 키울 마땅한 대체양육자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76년 4월 29일에 공포된 「어린이 교육요양법」에 따라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학교에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를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 애육원 등에서 키우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어(서동익, 1991), 가사노동 영역중 가장 두드러진 사회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 IV. 가정경제와 여성의 역할

원칙적으로 북한은 배정, 배급에 의해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게 되어 있으므로 남한의 시장과는 다른 유통구조를 갖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90년대 들어 체제 유지수단의 근간을 이뤘은 식량배급, 통행제한, 정보차단이 허물어지는 등 격변을 겪고 있다. 이 사실은 중앙일보 통일문제연구소가 89년 이후 94년 10월까지의 귀순자 34명의 증언을 1백일간 청취, 북한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귀순자들은 1990년대 들어서 인민들이 더 이상 정부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는데 이는 식량난을 포함한 경제난 때문이다. 식량배급이 함남, 함북, 자강, 양강, 강원등에서 적게는 보름, 많게는 3-6개월쯤 밀리면서 주민들은 각자의 연명을 위해 물자빼돌리기, 암상, 뇌물수수, 절도, 직장이탈 등의 갖가지 방법을 터득했고 이는 변화의 촉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엄격한 통제수단이던 식량이 이제는 농민시장에서 거래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 암상행위는 전국적 현상으로 장사를 안하는 주부는 머저리취급을 당하고 직장인들이 장사에 나서려고 갖가지 핑계를 대고 직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중앙일보, 1995년 1월 20일). 따라서 북한의 주부들은 식구들의 연명을 위해 직접 장사에 나설 수 밖에 없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 임무가 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1995년 수해이후 북한은 90년대 들어 체제 유지수단의 근간을 이뤘은 식량배급, 통행제한,

정보차단이 허물어지면서 암상행위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퍼져 거의 모든 주부들이 직장일과 집안일에 시달리면서 또다시 식량과 부족한 물자를 구하러 물건을 팔러다녀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 1994년 귀순한 여만철씨의 부인 이금옥씨의 증언을 들 수 있다(조선일보 1994년 5월 17일 기사). "92년 어느날 남편이 고추 한 부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40kg쯤 됐다. 사회안전부에서 쫓겨난뒤 남편은 채취기계총국(탄광) 함흥지구 운전수로 일하고 있었다. 남편 직장은 함흥부근 농장에서 배추를 공급받고 있는데 가끔씩 석탄을 실어다 주었다. 그러면 농장에서는 배추를 여분으로 더 주곤 했다. 일종의 뒷거래 물물교환이었다.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로가 필요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날도 남편은 농장에 석탄을 실어다 주었는데 사례로 고추를 얻어온 것이었다. 우리집으로서는 여간 귀한 물건이 아니었다. 우선 작은 고추를 골라냈다. 크고 싱싱한 것은 장마당(북한의 대도시에서만 허용되고 있음)에 내다팔고 작은 것은 집에서 먹기 위해서였다. 이웃집 할머니와 함께 아침 7시부터 팔기 시작해 낮 12시까지 모두 팔았다. 다른 사람들은 5원에 15개정도씩 팔았는데 나는 20개씩 주어 남들보다 훨씬 빨리 팔 수가 있었다. 이날 내가 번돈은 2백 80원이었다. 밑천이 든것이 없으니 고스란히 남는 돈이었다. 남편 월급이 70원인 걸 생각하면 정말 큰 돈이었다."

이 예를 보면 북한의 여성들은 물물교환과 장사를 통해 가정의 주요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이 된다. 더구나 암시장이 아닌 장에조차도 직장에서 일하다 교대시간에 여자들이 주로 간다고 하니(박완서, 1991), 여자들은 직장일과 집안일 그리고 장사와 기타 노동동원 및 학습참여까지 정말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은 여자들이 집안 살림만 하다가는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될 상황이다. 즉 이제는 주부의 암상행위가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것이다.

한편 여성들의 장사는 다른 방법으로도 행해진다. 물자가 귀한 북한에서는 해져 입지 못할 어른 옷은 이리저리 줄여서 어린이 옷으로 만든다든지, 기름을

모아 비누만들기, 쇠조각을 모아 자물쇠나 부엌칼, 못 만들기, 제지공장에서 잘못 만든 종이로 공책만들기, 목재를 모아 옷장만들기등 재활용품을 만들어 생산, 판매하는 8.3인민소비품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 물건을 사다가 직접 쓰기보다는 가져다 팔아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 여만철씨 부인 이금옥씨는 그들이 생활하던 함흥에 8.3직매점이 있어 물건이 나오면 남보다 먼저 구해 이걸 농촌에 가져가 옥수수나 바꾸곤 했다고 말했다(조선일보, 1994년 9월 16일 기사).

이렇듯 부족한 물자 사정으로 인해 북한 여성이 가족을 위해 식량과 물자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에 반해 남한은 넘치는 물건과 수입 개방으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각 가정의 화폐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예를들어 "한 밤중에 장바구니 들고 물건 사러 나간다"는 신문기사가 있다. 즉 심야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장을 보는 이른바 '심야쇼핑'이 서울을 비롯, 일산,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의 새로운 구매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24시간 영업으로 사람들은 구매 시간에 제약은 받지 않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쇼핑형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즉 남한은 부족한 물자때문이라기 보다 높은 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되고 반면 부유층들은 남아도는 돈과 시간때문에 과소비의 문제마저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통 구조의 변화와 수입개방으로 인해, 더욱 많은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대형 할인 매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패턴마저 바뀌어 가고 있다. 전화나 Fax, 컴퓨터를 이용한 홈쇼핑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유선방송의 시작과 함께 홈쇼핑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쏟아져 들어오는 고가의 수입품에 대한 의식있는 구매자에 대한 계몽이 활발하고, 소비자보호와 소비자 권리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북한과 달리 부족한 물자가 아니라 넘치는 물자속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국가 경제를 좌우한다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남한의 경제제도는 국가 주도라기 보다 소비자의 선택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상품은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나은 질



로 소비자를 공략하고자 한다. 따라서 남한의 여성들은 어떻게 물자를 구해올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어떤 물자를 선택할 것이냐는 문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이런 소비자 교육과 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원이라는 정부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물건을 사는 방법마저 좀더 편하고 즐겁게 바뀌어 안방에 앉아서 물건을 배달받는 것도 가능한 남한과 물자가 부족하여 산지로 직접 필요한 것을 찾아다녀야 하는 북한의 주부는 생필품 조달 방식에서 아주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통일후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함께 어울려 살게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남북가정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행해진 연구이다. 이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부딪칠 수 있는 문제가 가정생활이라 보고 이데올로기 차이에 의해 나타난 가정생활 전반을 비교하기 위해 가사노동의 사회화 실태와 그의 가족과 가정경제의 차이를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북한 가정의 근본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근본적인 공통점이란 어느 체제에서든 가사노동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성별분업이 뚜렷하다는 것과 양 체제 모두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에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두 체제의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인해 서로 다른 가사노동 사회화의 필요성과 형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영리적인 사회화가 북한에서는 가사노동의 집단화나 공동화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소득의 증가와 풍요로운 물질, 그리고 편리함의 추구로 인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왔다면 북한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여성 노동력의 동원 및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이용되어 왔고 이는 주민 생활의 통제 및 감시 체

제, 부족한 물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까지 이용되어 왔다.

결국 가정에서 가사노동의 사회화 상태는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이로인한 서로 다른 가사노동 사회화 방식에 따라 서로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두 체제간의 가정생활의 차이로 이어진다. 또한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필요성이 모두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정일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성별분리현상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에서의 성별분리의 뚜렷한 현상중에서도 여성운동으로 인한 여성들의 의식개혁과 취업으로 인한 여성들의 시간부족으로 남한에서는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당연히 가사노동이란 모두 여자들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계속 이어진다면 남북한의 가정생활의 차이는 계속 커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 여성들만이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남한과 같은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주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북한에서 가사노동의 량이 남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고, 평등이나 가사노동분담의 필요성을 인식할 여유가 없어 식량을 구해 생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단란한 가족관계도 생각할 수 없고, 어떻게 하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직장을 나와서 장사를 하는 등 모든 가정생활이 식량과 관계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사는 집이 불편하고 살림살이가 없어도, 직장에서 받는 돈과 배급표만으로는 식구들의 생계가 불투명 하기 때문에 주부들은 모든 일을 제치고 식량을 구하러 다녀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실제 북한의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보다는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일이 주 임무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래 여성들의 노동력을 사회로 동원하고자 실시되었던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부족한 식량과 낮은 질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북한 여성들은 결국 이중, 삼중의 노동부담에 시달리게 된

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가사노동시간과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등 가정관리와 관련된 시간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실제 육체적인 노동은 가사노동의 기계화나 사회화를 통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가사노동의 기계화란 물자부족으로 인해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가사노동의 사회화도 공동화나 집단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청소나 주택관리로만 한정된 상태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같은 이질화 현상을 나타나게 한 두 체제간의 가정생활운영방식의 차이점은 통일후 남북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물질적 풍요와 이로 인한 문제, 그리고 물질의 절대적인 부족과 이로 인한 문제로 대별되는 남북의 가정생활 문제는 통일후 가사노동 사회화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다.

우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문제는 우선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물자부족란을 해결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이질화의 문제를 떠난 북한 주민의 생존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다음 북한가정의 생활수준을 분석하고 남한 가정과 비교하여 그들의 수준을 끌어올릴 표준을 설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어떤 물건이나 음식을 얼마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그 물건들의 제공을 얼마동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라는 것,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계획적인 가사노동 사회화의 실행 그 자체가 갖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후 여성과 가족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두 체제의 조화를 위해 국민복지 차원에서 성공적인 남북한 여성노동 부담 해결 방안과 성별 분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연구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의 실행안과 이를 뒷받침 할 정책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강광식(1987), 북한의 실태 -분야별 경험자료 및 예비적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2) 공산권문제연구소(1972), 북한의 가정과 부녀자, 공산권문제연구소.
- 3) 김선옥(1992), 북한의 여성생활, 북한의 여성정책, 여성연구, 제10권 3호, 5-46.
- 4) 김애실외(1991),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 5) 김혜경(1985), 가사노동 이론에 관한 연구: 여성해방론에서의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남인숙(1992), 남북한 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신문사.
- 7) 문숙재(1990), 가정생산, 서울: 신광출판사.
- 8) 문숙재(1994), 북한의 여성과 가정생활, 여성학논집 1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9) 문숙재·조성은(1996), 남북한 가정의 가사노동사회화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권 4호.
- 10) 문숙재·채옥희(1988), 가사노동, 서울: 신광출판사.
- 11) 박완서외(1991), 북한 사람, 북한가정, 북한사회,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조선일보사.
- 12) 변화순(1992), 남북한 가족의 다른점과 닮은점, 여성연구 제10권 3호, 195-204.
- 13) 서동익(1991), 북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일생,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조선일보사.
- 14) 손봉숙외(1991),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 15) 안계춘(1989), 북한 주민생활 실태조사, 서울: 국토통일원.
- 16) 안드레이 란코프(1991), 평양의 지붕밑, 연합통신.
- 17) 윤미량(1991),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 18) 이은숙(1993),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법문사.
- 19) 이태영(1981),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 20) 이태영(1988), 북한여성, 실천문화사.
- 21) 장필화(1992), 「북한사회의 성별분업」, 북한의 여

- 성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자료(미간행).
- 22) 정지영(1990),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와 그에 따른 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조용관(1995), 북한 가정정책의 변화와 가정윤리, 국립경찰대학 공간문제연구소 공간연구, 7권 1호.
- 24) 조 형(1992), “북한사회체제와 가부장제”, 북한의 여성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자료(미간행).
- 25) 한국여성개발원(1992),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8), 북한의 실상, 고려원.